

## 인도중앙은행 총재, 인도 루피화하락은 정부무능때문이라고 비판

---

(2013. 8. 30)

뉴델리사무소

### □ 인도중앙은행 총재, 인도 루피화하락은 정부무능 탓

- 5년 임기를 마치고 9월 초 이임할 수바라오 인도중앙은행 총재는 지난 29일(목) 마지막 공식 강연에서 인도 루피화 가치 급락은 무능한 정부정책 탓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.
- 인도의 루피화는 최근 미 달러화에 대해 연일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, 8월 29일 외환시장에서 동일 마감기준 68.83루피를 기록해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음.
- 이날 수바라오 총재는 인도정부의 “느슨한 재정정책” 때문에 중앙은행의 자율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, 루피화 가치 급락의 모든 원인을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)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이는 잘 못된 것이라며 근본원인은 인도의 경상수지적자가 최근 3년 연속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데 있다고 설명함
- 그는 금년에도 경상수지 적자폭이 정상수준을 초과할 것이며, 공급부문제약과 지배구조 문제는 중앙은행 권한 밖의 일이라며 인도의 재무부를 비난하고 나섬.

- 더욱이, 수바라오총재는 중앙은행의 긴축 금융정책을 비난해 온 사람들은 2009~2012년 정부의 느슨한 재정정책 탓에 중앙은행의 자율성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주장하고 재정통합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면 중앙은행이 덜 긴축정책을 구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함.
- 이에 대해,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은 지난 27일 자신이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수바라오총재의 발언 취지와 같다면 대립각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.
- 치담바람장관은 당시 의회에서 루피화 가치 하락은 전임 재무장관(프라담 무커지 현 대통령)이 내린 경기부양 결정 때문에 재정 및 경상수지 적자가 한도를 넘어선 데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.
- 한편, 수바라오 총재는 내달 4일 임기를 마치고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견한 라구람 라잔 전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에게 바통을 넘길 예정이다.

자료원 : Business Standard 등 언론종합